

(주)한일진공기계, 박막광학제어기 시연회 열어

-3월 30일 업계 관계자 70여명 초청, 성황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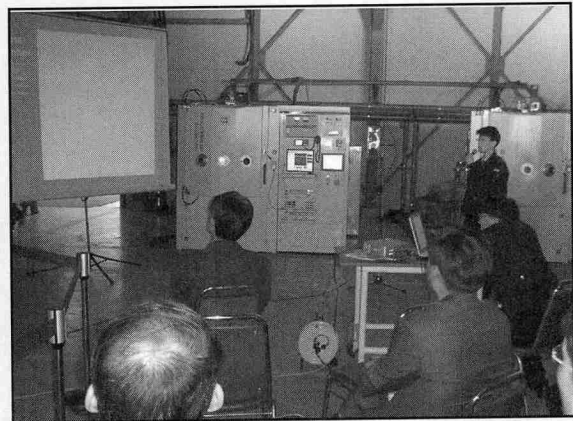
한일진공기계(대표·이희신)는 지난 3월 30일 본사에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을 초청, 박막광학제어기(Hanil Optical Monitoring System)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체 박막생산장비의 개관 및 박막광학제어기의 활용 코팅 사례 소개와 박막광학제어기 개발 경과 및 특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장소를 이동하여 박막광학제어기를 직접 운전 시연하는 모습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하고 생산제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일진공에서는 2006년 진공 증착 프로세서가 기술된 파일(엑셀파일)을 공정프로그램에서 읽어 들여 기술된 공정에 따라 완전 자동으로 공정을 수행하며, 공정 중 변화되는 파라미터(온도, 진공도, 증착 레이트, 가스량, 전자 빔상태, 이온소스 상태 등)를 기록하여 생산된 제품의 품질과 공정의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공정 프로그램(HVC2007)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금년 3월에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중 광학식 두께를 직접모니터링 할 수 있는 380nm~2,000nm 분광 대역의 Hanil Optical Monitoring System(HOMS)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상용화 하게 됐다.

이날 제품 프리젠테이션을 맡은 연구소의 박민서 과장은 "HOMS 시스템은 기존 코팅장비를 사용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라미터(진공도, 온도, 증착 레이트 등)의 변화로 인한 굴절률의 변화가 막 두께 제어에 전혀 반영되는 않는 개방 루프 시스템(Open Loop System)이었지만, HOMS시스템이 장착된 장비는 공정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한 박막의 특성변화를 실시간으로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는 폐루프 시스템(Closed Loop System)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광 디바이스의 재현성 및 공정의 수율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이희신 대표이사는 "국내 광학업계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한일진공은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외국 장비와 겨루어 손색이 없는 장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일진공기계는 지난 3월 30일 본사에 관련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을 초청, 박막광학제어기(Hanil Optical Monitoring System) 시연회를 가졌다.



▶박막광학제어기를 직접 운전 시연하는 모습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하고 생산제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